

「話してみよう韓国語 2024~25」
中高生スキット部門【食べ物の相性】

A : 日本人学生 B : 韓国人学生

<学校の教室で>

A: あ~やっと試験終わった!

B: 一週間お疲れ様。

A: (B)も本当にお疲れ様。でも試験終わったからすっきりしたね。

B: そうだね。緊張が解けたらお腹すいた。なんか美味しいものの食べに行かない?

A: いいね!じゃあ()に新しくできた粉食店*はどう?

B: うん!行こう行こう。

<粉食店で>

(注文したトッポギと天ぷらが出ている状態)

A&B: いただきます~

B: わ~美味しそう。天ぷらにトッポギのソースを付けて食べるのもっと美味しいよ。

A: (ソースを付けた天ぷらを食べて) お~私実は辛いもの苦手なんだけど、こうやって食べると相性がいいね~

B: でしょ?辛いトッポギにはチーズとたくあんもよく合うよ。

A: 早く頼んで食べてみよう。

B: うん!すみません。チーズとたくあん追加をお願いします。

A: ありがとう。

B: いいえ~ところで、日本料理にもトッポギと天ぷらみたいに相性がいい食べ物って何があるの?

(以下、自由創作)

「함께 말해봐요 한국어 2024~25」
중고생스킷부분【음식 궁합】

A : 일본인 학생 B : 한국인 학생

<학교 교실에서>

A: 아~드디어 시험 끝났다!

B: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

A: (B)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래도 시험 끝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B: 그러게. 긴장이 풀렸더니 배고파졌어. 우리 맛있는거 먹으러 안갈래?

A: 좋아! 그럼()에 새로 생긴 분식점* 갈까?

B: 그래~ 가자가자

<분식점에서>

(주문한 떡볶이와 튀김이 나와있는 상태)

A&B: 잘 먹겠습니다~

B: 와~맛있겠다. 튀김은 떡볶이 소스에 찍어먹으면 더 맛있어.

A: (소스 찍은 튀김을 먹은 후) 오~ 나 사실은 매운 것 잘 못먹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궁합이 잘 맞네~

B: 그치? 매운 떡볶이에는 치즈랑 단무지도 잘 어울려

A: 얼른 시켜서 먹어보자.

B: 그래! 여기요~ 치즈랑 단무지 추가해주세요.

A: 고마워.

B: 아니야~그런데 일본음식에도 떡볶이랑 튀김처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어?

(이하 자유 창작)

*분식점 (粉食店)とは:小麦粉を使った料理やご飯物などを提供する軽食店のこと